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양육 특성, 지역사회 특성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Maternal Parenting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oddler
Development**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전공
위 호 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양육 특성, 지역사회 특성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권 순 만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전공

위 호 성

위호성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김 창 엽 (인)

부위원장 조 영 태 (인)

지도교수 권 순 만 (인)

초 록

아동기의 발달은 인간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미래의 생산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건강권이 생존권, 존엄권과 더불어 아동의 기본권에 속해 있는 것처럼 아동 건강의 중요 영역으로써의 발달의 가치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추구해야 할 건강권의 기능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과 달리 자신의 건강을 선택할 자유가 제한된 아동의 의존적 특성상 유전이나 생물학적 원인 외의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아동 발달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환경적 차이에 따른 건강 불평등적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 유아 발달에 건강 불평등적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 수입, 아버지의 직업, 부를 나타내는 주택 소유 여부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양육특성은 부모의 아동에 대한 민감하고 온정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양육행동, 양육시 어머니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 올바른 양육지식의 소유여부를 한국아동패널에서 선정한 도구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지역사회 특성은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규모, 사회적 지원의 정도, 지역거주 여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아동 특성을 통제한 가운데 이 세가지 환경 특성이 한국형 영유아 발달 검사를 통해 측정된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의사소통,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영역으로 대표되는 전반적인 발달과, 언어 능력을 나타내는 의사소통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지위 중 수입과 아버지의 직업, 양육특성 중 양육행동은 전반적인 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의사소통 발달에서는 수입이 높을수록 유아의 언어 발달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직업이 비육체에 속한 유아의 경우 부의 직업이 육체인 유아보다 언어발달이 더 좋았으며 양육특성 중 어머니가 유아에 대해 민감하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아의 언어발달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이것은 대도시 지역 내에서의 지역차가 있는 만큼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의 한계점으로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시간적 차이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점과 종속변수인 한국형 영유아 발달검사가 선별검사라는 점, 현재 유아 발달의 차이가 미래의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러 문헌과 본 연구를 통해 건강 불평등을 조성하는 구조적 대표 요인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된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마련이 필요함을 함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의 건강 불평등이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여 환경적 관점에서 아동 발달의 출발점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주요어 : 유아 발달,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특성, 지역 특성

건강불평등

학 번 : 2011-23856

목 차

제 1 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1. 영유아기 발달의 이론적 고찰	6
1) 대근육, 소근육운동 발달	6
2)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 발달	8
3) 개인-사회성 발달	9
2.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
2.1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 발달	14
1) 사회경제적 지위	14
2)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 발달과의 관계	17
2.2 양육특성과 발달	22
2.3 지역사회 특성과 발달	24
제 3 장 연구방법	26
1. 연구모형	26
2. 연구자료	28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8
1) 독립변수	28
(1) 사회경제적 지위	28
(2) 어머니 양육특성	29

(3) 지역사회 특성	30
(4) 아동 특성 (통제변수)	31
2) 종속변수	32
4. 분석방법	33
 제 4 장 연구결과	 36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36
2. 소득계층별, 지역 규모별 연구대상의 특성	39
3.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사회 특성과 발달과의 관계	41
4. 어머니 양육특성, 사회지원과 발달과의 관계	44
5.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이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	46
6.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이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미치는 영향	50
 제 5 장 고찰	 54
 참고문헌	 62
Abstract	73

표 목 차

[표 1] 종속 변수 및 독립 변수 측정	34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38
[표 3] 소득계층별, 지역 규모별 분석	40
[표 4]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발달의 차이...	42
[표 5] 발달과 양육특성 변수, 사회지원 변수 간의 상관관계...	45
[표 6]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48
[표 7]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52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27
------------------	----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란 단어가 익숙하고 낯설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8년 금융위기 다음해인 2009년 1.149명의 출산율을 기록한 이후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2012년에는 1.3명을 기록했으나 OECD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인 1.70명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초저출산율의 추세는 사회경제적 연유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 세대를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 및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삼식과 이소정, 2011)이 있지 않는 한 출산율의 저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미래 생산인구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아동의 절대적 수의 감소와 아동 건강의 기능적 상실은 사회성장 및 유지에 필요한 인간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WHO, 2007).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의 건강은 생존권, 존엄권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인간의 권리로써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http://www.unicef.org/crc/>).

아동의 건강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을 포함하여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에 반응하는 아동의 기질적 성격 및 행위로 결정되며(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2011) 특히 아동의 의존적 특성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건강 결정권을 갖는 성인과 달리 가정의 사회경제적 및 양육 환경이 아동의 건강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WHO, 2007). 이는 가정 빈곤으로

인한 영양 결핍, 그로 인한 성장발육의 저하 및 감염 대한 면역의 취약성,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의 차이, 질병에 대한 의료이용의 접근성, 주양육자를 모방하는 건강 행태 등 각 가정의 환경적 요소에 따라 건강상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Brooks-Gunn & Duncan, 1997; McLoyd, 1990; Conger et al., 1997; Bradley & Corwyn, 2002). 피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차이 등 여러 인위적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차이를 우리는 ‘건강 불평등’이라고 부르는데(Whitehead, 1992) 아동의 의존적 특성상 가정의 환경에 따라 건강의 차이를 불러온다면 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결정된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건강 불평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구제금융,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빈부의 격차는 물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주류에 대한 사회적 불만 및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족 환경에 따른 아동의 건강 불평등이 우려되고 있고 세대간으로 건강 불평등이 되물림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겠다(Khang, 2006; 방하남과 김기현, 2001; 정진호 등, 2002; 구인회와 임세희, 2007).

아동의 건강 중 발달은 충분한 영양 섭취, 신체적 성숙, 중추신경계의 외상이나 감염으로부터의 안전등 건강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언어적, 인지적 성숙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 아동 건강의 일면을 대변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특성 중 발달에 관여하는 다른 모든 환경적 인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Brooks-Gunn, 1997; WHO, 2007)를 꼽을 수 있으므로 발달은 아동 건강 불평등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강상의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아 사망률이나 사고 사망률과 같이 측정이 명확하여 각 나라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지표처럼 발달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고 각 시기별로 빠르게 변화하는 아동 발달의 경우에는 더욱 그 어려움이 클 수 있다. 하지만, 시기별로 아동이 수행해야 할 과제인 발달 이정표(developmental milestone)를 통해 수행여부를 측정함으로써 발달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김명희 등(2011)은 아동기 건강 문제의 범위는 사망과 이환을 넘어 고유의 특성인 성장과 발달까지 포괄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WHO(2007)는 조기 아동 발달(Early Child Development, ECD)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신체적, 사회·정서적, 언어·인지적 발달을 구성요소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놀이’와 ‘관계발달’처럼 보건학 분야에서 흔히 탐구하지 않던 주제들도 아동건강의 주요 요인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하였다(WHO, 2007; 김명희 등, 2011).

학령 전기 아동에 대해 매년 1달러의 투자가 이후 40년 동안 17달러의 효과를 낳는다는 분석결과가 말해주듯(WHO, 2007) 조기 투자 및 발달 영역에 있어서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소에 대한 조기 개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이 상당하다는 중요성에 비해(Heckman, 2008)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건강 불평등에 대한 발달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중 유아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 등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유아의 전반적 발달 및 의사소통 분야의

발달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불평등적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기개입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아동의 전반적 발달 및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유아 발달의 불평등적 요소를 파악하여 조기 개입의 근거를 살펴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부모의 학력, 수입, 아버지의 직업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양육특성 중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직접적으로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3) 지역사회 특성 중 지역적절성,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규모가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영유아기 발달의 이론적 고찰

- 발달 영역을 중심으로

아동 발달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아동 기질로 대표되는 생물학적 특성 및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 아동과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모두를 포함하는 생물심리사회적(biopsychosocial) 모델로 설명될 수 있으며(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2011) 본 연구의 아동 발달에 대한 접근은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사회적, 심리적, 언어적, 인지적, 인지와 같은 특별한 영역 안에서의 발달 과제를 추적해 나가는 것이므로 이러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대근육, 소근육운동 발달

대근육운동 발달은 영아가 기어 다니기, 서기, 걷기, 달리기, 뛰기 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돌아다닐 수 있게 주로 큰 근육을 사용하는 발달을 의미하며 소근육운동 발달은 손 뻗기와 쥐기, 입방체를 세우기, 옷을 입고 벗고, 손가락을 사용하는 등과 같이 보다 작은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홍창의 소아과학, 2004). 운동 발달의 역동적 체계이론에 따르면 운동기능에 능숙해지는 것은 점점 복잡한 행동체계를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기능이 하나의 체계로 작용할 때, 분리된 능력은 환경을 탐색하고 통제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다른 기능과 각각

협응하여 함께 조화를 이룬다 (아동 발달, 2007). 대근육운동과 소근육운동의 시기별로 수행해야 하는 발달 과제는 시냅스 연결을 통한 중추신경계의 발달과 함께 기고, 앉고, 걷고, 뛰고, 미세한 손가락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근육과 인대의 발달을 포함한 운동능력의 향상, 아동의 기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속의 목적,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적 자극 및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진 연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Galloway & Thelen(2004)은 운동기능의 발달은 주변 환경의 자극과 그것에 반응하는 신체부위의 자율성 및 영아의 노력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운동 발달에 있어서의 초기 자극의 중요성과 초기 움직임의 기회와 가정내의 자극 환경이 운동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Reed & Bril, 1996; Poresky & Henderson, 1982). 생의 초기 2년 간의 운동 발달을 지배하는 동일한 원리가 유아기 동안에도 계속 작용하는데 유아들은 이전에 습득한 능력을 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행동체계에 통합시킨다. 유아들의 신체가 더 크고 강하게 자라고, 중추신경조직이 발달하고, 환경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지각능력과 인지능력·발달의 도움으로 새로운 목표를 성취하려는 시도를 함에 따라 유아들은 각각의 새로운 기술들을 교정한다(아동 발달, 2007). 유아기에는 운동능력의 개인차 및 성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신체적 특성, 인종, 놀이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게 된다(Thoman & French, 1985; Williams et al., 1996). Lejarraga 등(2002)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1세 이후 아동의 더 좋은 운동 발달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고 많은 연구들에서 중간 계층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갖는 가정의 아동과 비교할 때 낮은 계층의 가정에 속한 아동들의 운동 발달이 더 좋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Bax & Whitmore, 1987; Giagazoglou et al., 2005).

2) 의사소통(언어) 및 문제해결 능력(인지) 발달

아동의 인지발달은 특히 영유아기에 급격히 발달하는데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대략 2세에 이르기까지 영유아의 인지능력은 감각운동 과정을 통해 발달하며 유아는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사물과 상호작용하면서 대상영속성을 습득하고, 점차적으로 복잡한 사고가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언어는 지적 활동의 중요한 매체일 뿐 아니라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사회생활의 기본이 된다. 언어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주위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이나 인지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조복희 등, 2008). 영아기 초기의 의사소통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작하나, 4개월 용알이부터 시작하여 영아가 끝나는 2세 쯤이면 언어능력의 발달이 급격하여 50~200개 정도의 어휘를 갖게 되며 이후 두 단어를 결합하여 문장을 말하기 시작하여 6세경에는 만 개 정도의 단어를 습득하고 정교한 문장을 사용하여 능숙하게 대화에 참여한다. 스캐너는 언어발달이 전적으로 환경적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 행동주의 이론을 주장하였고 언어학자 촘스키는 아동들이 복잡한 언어 규칙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미리 유전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는 생득주의 이론을 내놓았다(아동 발달, 2007). 하지만 언어발달에 대한 최근 견해들은 내적 능력과 환경적 영향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언어 학습의 사회적 맥락을 중요시 여긴다. 즉, 언어환경으로서 어머니의 언어자극 및 가정 환경이 아동에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어머니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언어발달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언어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어머니와 같은 주변 어른의 언어모델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Caldwell & Bradley는 적절한 놀이 도구의 제공, 물리적 환경의 조직화, 부모가 감정적으로 언어적으로 반응하는 정도, 부모가 아동을 수용하는 정도, 일상적인 자극의 다양성을 기초로 하여 가정환경 관찰 척도(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HOME)를 개발하였는데 이러한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능력과 유아의 지능이 높다는 것을 예측해 준다고 하였으며(Bradley et al., 1989)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잘 조직화되고 자극을 제공해 주는 물리적 환경과 부모의 격려, 부모와 함께하기, 부모의 애정 등은 영아기 초기의 지능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하였다(Klebanov et al., 1998; Roberts, Burchinal, Durham, 1999).

3) 개인-사회성(사회 심리적) 발달

에릭슨은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신뢰, 생후 2년째에는 배변 훈련을 통한 자율성 대 수치와 회의를 통해 영아의 기질 및 심리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아동들이 양육자에 대한 충분한 신뢰와 독립성에 대한 건강한 감정을 갖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적응 및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자신감이 없으며 의존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아동 발달, 2007). 사회 심리적 발달에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건강한 애착이 중요한데 이것은 애정과 안정감을 형성하여 모든 측면의 사회 심리적 발달을 도와준다. Belsky & Fearon (2002)은 1세부터 3세까지의 아동을 연구한 결과 양육자의 양육행동이 민감한 경우 안정되게 애착된 아동들은 인지 사회 정서적 점수가 높은 반면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된 후

아동들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양육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 정서적 점수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애착을 형성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집 양육, 장시간의 어린이집 양육, 어머니가 직장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Ainsworth(1978)는 어머니나 주양육자와 아동이 깊은 애착관계를 가진다면 외부세계에 대한 탐색활동을 잘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아동은 탐색활동을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2.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은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을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individual), 유아를 가장 가깝게 둘러싸고 있는 가족,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및 관계적 공동체, 아동 발달에 개입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광역 및 국가 수준, 전 지구 차원, 시민사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WHO, 2007) Bronfenbrenner(1979)는 아동 개인의 생물학적 요인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미시적, 거시적 환경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발달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적 특성인 유전은 쌍둥이 입양 연구를 살펴볼 때 IQ 변동, 사회성과 호기심과 같은 성격 특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절반 정도를 설명하고 있고(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2011)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 발달에 영향을 주며 생물학적 범주에 속하는 아동기질, 자궁 내에서의 수은·알코올과 같은 기형발생 물질에 대한 노출, 뇌수막염·외상성 뇌손상과 같은 출생 후 질환, 남

과 같은 위해 물질의 노출 등도 아동 발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여러 문헌을 통해 보고되었다(Goldsmith et al., 1997; Brooks-Gunn & Duncan, 1997; McLoyd, 1990; Conger et al., 1997; Bradley & Corwyn, 2002;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2011).

환경적 요소 중 가정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거주 지역은 아동 발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단위로 발달에 있어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발달에 관여하는 대부분의 환경적 자극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타 다른 환경과의 접촉 또한 제한할 수 있어(WHO, 2007)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광역 및 국가, 전 지구 환경보다 아동 발달에 직접적 영향권 안에 있다는 사실과 아동 발달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조기개입의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수준(level)이라고 할 수 있다(Heckman, 2008).

아동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환경적 요소는 크게 구조적 측면과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측면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취업 여부, 가정내의 형제 자매 수와 아동의 순위 등으로 구성되며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및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측면은 양육 태도,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부모의 우울감, 결혼 만족도, 부부 갈등, 자녀의 미래 기대 등이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요인들 중 부모의 학력, 직업, 수입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 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며(WHO, 2007) 아동의 유전적 요소 및 기질적 요소를 제외한 발달에 관여하는 생물학적 요소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이 보고되고 있다(Brooks-Gunn & Duncan, 1997). 즉,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영양, 어머니의 산전 진찰, 예방접종 및 질병에 대한 아동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생물학적으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여한다(Bradley & Corwyn, 2002).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는 언어, 인지, 심리사회, 신체적 발달 등 아동 발달 전반에 있어서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WHO, 2007; McLoyd, 1990)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좋지 않았을 경우 후기 아동기 때보다 아동 초기 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조기 개입의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은 크다 하겠다(Brooks-Gunn & Duncan, 1997; Heckman, 2008).

발달에 관여하는 가정의 환경 중 부모와 유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재적 측면은 장기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영유아기의 일관성 있는 돌봄과 애정과 지지는 애착을 공고히 하여 건강한 아동 발달의 주요한 요소로 설명되고 있으며(Belsky & Fearon, 2002; Bowlby, 1969) 이 요소 중 양육행동,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아기는 생애 최초의 경험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양육행동은 유아기의 특성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Ainsworth, 1978; Abidin, 1992). 즉 유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유아의 인지언어 능력이 향상되고(Parcel & Elizabeth, 1990; Lasko et al., 1999), IQ나 언어 및 읽기능력, 학업성취와 같은 인지적인 면과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eane et al., 2003; Wilson, 1991). 양육지식은 전반적인 유아 발달영역에 있어서 여러 변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중 보고되기도 하며(Seo, 2006) 적절한 양육지식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더 나은 양육행동을 보여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선진국에서의 성공적인 양육 프로그램의 시행 및 유아 발달의 증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Cowan & Cowan, 1995). 내재적 요인 중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부모의 우울감, 결혼 만족도, 부부 갈등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부모 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며(Abidin, 1992)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발달 특히, 언어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안지영, 2000). 그러나 양육스트레스가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해 유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사회 환경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강력하게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Bradley & Corwyn, 2002; Brooks-Gunn & Duncan 1997) 특히, 지역사회의 강한 지지적 관계는 유아양육과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지해 주며 이는 아동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아동의 비행을 낮추고 학업성취를 높이며 성인이 되어서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사회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가정의 경우 아동 발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ones et al., 2002; 이재림과 옥선화, 2001).

이상으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유아 발달에 있어서 유전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나 현대의학의 발

달에도 불구하고 조기 개입의 여지 가능성은 많지 않으며 여러 환경적 요소 중 가정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단위이자 조기 개입의 근거가 되는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아 발달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 이외에 유아에 있어서 가정내의 어머니의 양육특성은 유아와의 관계에 영향을 줌으로 아동 발달에 관여하는 또 다른 주요 변수이며 지역사회의 특성인 사회적 지지 등은 가족배경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어 사회적 개입의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1.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 발달

1)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란 사회경제적 위치(socioeconomic position), 사회계급(social class), 사회계층(social stratification)과 종종 호환되는 용어로(Galobardes et al., 2006) 사회구조 안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요인을 의미한다(Krieger et al., 1997; Lynch & Kaplan, 2000).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폭로요인, 자원, 감수성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역사적, 학문적으로 건강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해하고 측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것은 마르크스주의, 베버주의, 기능주의 세가지 사회적 전통이었다. 마르크스주의 관습은(Marxian tradition)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여 생산수단에 대해 공통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계급을 분류하였고 베버는

경제적 재화와 기술을 불평등하게 배분하는 요인이 되는 계급(class)을 통한 지위(status)와 정치적 힘에 의해 분류하였고 이것은 미국 기능주의 관점이 사회계층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사회경제학적 지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측정치들은 개인의 지식, 자격, 기술, 자산의 측정과 연관된 베버리안 구조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능주의자적 관점과 결합하여 교육, 수입, 자산(wealth), 직업적 지위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Lynch & Kaplan, 2000; 김창엽, 2004).

교육수준은 개인이 습득한 지식과 관련된 자산을 측정하는 지표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사회 경제적 위치로부터 자신이 성취한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위치로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며 장래 직업과 소득의 강력한 결정요인이기도 한다(Lynch & Kaplan, 2000; Liberatos et al., 1988; 최용준 등, 2007 재인용). 교육수준은 교육연수라는 연속형 변수로 측정하기보다는 학력이라는 범주형 변수를 사용하는데 이는 하나의 학력 내에 존재하는 교육연수의 차이보다는 학력간 차이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최용준 등, 2007 재인용). 우리나라의 건강 불평등 연구에서는 아동의 치명적 사고, 아동기 사망률, 성인기 사망률의 차를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교육수준을 사용하였다(Khang, 2006; Kim et al., 2007; Kim et al., 2009).

계급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지표는 평생 소득능력인 직업으로 계급, 수입, 재산, 교육, 자격, 지위 등의 다른 지표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직업을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영국 통계청의 사회계급 분류체계가 가정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종을 사회계급I, 교사, 간호사, 관리자의 중간직을 사회계급 II, 타자수 등의 숙련 비육체노동자를 사회계급

IIIa로 분류하여 이상을 비육체 노동자로 광부, 버스운전사와 같은 숙련 육체노동자를 IIIb, 농부, 차장과 같은 반숙련 육체노동자를 IV, 세탁부, 노동자 등의 미숙련 육체노동자를 V로 분류하여 이상을 육체노동자로 분류하고 있다(조흥준, 2003). 소득과 관련 깊은 직업의 건강에 영향은 소득 같은 물질적 자원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므로 양질의 의료와 교육, 주거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반영하며 직무에서의 자율성을 반영하여 심리사회적 기전을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최용준 등, 2007).

소득은 다양한 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정지표로 ‘소득이 올라갈수록 건강이 향상되는 ‘용량-반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Backlund et al., 1996, Ecob & Smith, 1999). 소득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건강에 중요한 자원으로의 전환되어 주택, 식량과 같은 양질의 물질적 자원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보건의료서비스와 여가 생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고 있다(Galobardes et al., 2006). 또 부모의 소득은 자녀 교육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최용준 등, 2007)

소득은 개인의 수입보다는 가구원의 수입으로 대부분 측정되는데 가구원 중에 소득이 없는 노인, 여성이나 아동들을 위해 가구원 개개인의 물질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이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지표를 모든 가구원에 적용하기 위해 가구원 수입을 사용하는 것은 가구 내의 필요에 따라 수입이 균등하게 분포한다는 가정에 있다(Galobardes et al., 2006). 그러므로, 각 가구의 수입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등가소득(equivalent income)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가구원 수의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0.36승으로 나눈다든지 가구의 자녀수를 감안하기 위해 성인수에 자녀수에 제공근을 더한 값의 제공근으로 가구소득을 나누는 방식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가구수입을 가구원수의 제공근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Mackenbach et al., 1997; Gravelle et al., 2003; 정진호 등 2002).

수입은 단기적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휘발성이라는 관점이 있는(Hauser, 1994; Daly et al., 2002) 반면 부는 모든 기회에 근접할 수 있는 더욱 정확한 지표라는 관점에서 가용할만한 재정적 자원의 더 좋은 측정치로 생각되기도 한다(Ostrove et al., 1999; Williams et al., 1995). 주거, 자동차, 투자액, 연금, 누적 소득과 같은 부의 종류 중 주거는 소비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부의 핵심요소로 간주되며 사회경제적 환경의 물질적 측면을 나타낸다. 특히 자가 또는 임대 등 주거의 소유 형태는 가장 널리 쓰이는 부의 지표 중 하나이다(Shaw, 2004).

이상에서 교육, 직업, 수입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들이며 개별 지표로의 의미 또한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교육수준, 직업 등의 개인단위 지표들을 점수화하여 산출하는 복합지표를 사용하기도 하나 Krieger et al. (1997)는 복합지표를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최상인지에 대한 합의점이 없으며 해당 지표를 구성하는 개별적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각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 발달과의 관계

(1)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기전

①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 발달의 차이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재화, 서비스, 시간, 교육 지원을 아동에게 투자하는 정도가 다르며 특히 빈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일상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재료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낮은 아동 발달을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Becker & Tomes, 1986; Bradley & Coryn, 2002). 또한 Brooks-Gun & Duncan(1997)은 부모의 수입은 아동의 영양, 어머니의 산전진찰, 아동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주거환경, 가족의 안정,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이웃의 조건, 외부 학습의 기회, 양질의 학교 출석, 동년배 그룹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좋은 성장발육은 그 자체로 건강한 결과일 뿐 아니라 빈곤이 인지적 발달 및 학업 성취와 같은 발달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HOME scale은 가정의 측정할 수 있는 자원 즉 읽을 책들, 장난감, 부모의 교육 방법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입이 많을수록 이 scale에 의해 측정된 아동 발달을 위한 가정환경이 좋으며 이는 아동의 언어발달과 지능발달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Bradley et al., 1989; Klebanov et al., 1998; Roberts et al., 1999).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 발달의 차이를 가져오는 또 다른 이론은 가족스트레스 이론인데 가족소득의 수준이나 소득의 변화는 부모의 정서상의 변화 및 스트레스를 받게 하며 이는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자녀양육에 악영향을 끼쳐 부정적 가족과정을 겪게 하여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McLoyd, 1990; Conger et al.,

1997). 즉, 가족소득 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족이나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가족은 수준 낮은 식생활과 질이 낮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이와 같은 열악한 생활조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부모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Coleman(1988)은 가족내 사회자본을 설명하면서 자본을 재정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으로 구분하고 재정자원은 가구 소득이나 부, 인적자원은 부모학력수준, 그리고 사회자본은 주로 부모-자녀 간의 관계성에 있다고 보았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력, 소득이나 부는 사회자본이라기보다 사회자본의 원인변수로 작용한다고 보았다(이봉주 등, 2010 재인용). 이 이론은 아동의 발달에 유용한 가족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나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아동 발달의 결정 과정으로 설명한다. 특히 가정내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아동 발달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Coleman, 1988; 1990; 김광혁, 2012 재인용).

② 부모의 학력에 따른 아동 발달의 차이

부모의 학력은 직업, 수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표 중에서 부모의 교육수준, 특히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어머니-자녀의 상호관계, 인지적 자극, 아동의 인지 발달에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Hoffman, 2003). 또한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 부모의 학력이 높을 경우 아동에게 광범위한 주제와 다양한 단어들을 노출시키며 아동의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고 이러한 영향들은 부모와 아동과의 대화의 범위나 질을 향상시켜 인지적 발달 및 좋은 학업성적으로 이어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Hart & Risley, 1992, 1995; Walberg et al., 1976).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아동 발달에 더 많은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동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윤형주와 조복희, 2004).

③ 부의 직업 계층에 따른 아동 발달의 차이

Kohn(1963)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발달 사이의 관계는 낮은 직업계층과 중간 계층을 구별하는 직업의 속성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중간 계층의 직업은 생각, 상징, 개인간의 관계를 다룸으로 인해 탄력성(flexibility), 생각, 판단을 요구하는데 반해 하위 계층의 직업은 신체적 대상을 다루며 훨씬 더 정형화되고, 덜 복잡하고 감독되는 것을 요구하는 특성을 각기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Kohn et al., 1963, 1973, 1982). 이러한 차이로 중간 계층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있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기대하는 반면 하위 계층의 아버지는 복종과 규칙에 대한 순응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는 것이다. 낮은 계층의 부모는 더 많은 체벌을 하였으며 자녀들의 행동을 결과론적 관점에서 판단한 반면 중간 계층의 부모들은 심리적 훈육을 더 많이 사용하고 동기의 관점에서 행동을 판단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Kohn et al., 1963). 낮은 계층의 부모들은 훨씬 더 힘에 근거한 방법을 변명에 대해 너그럽지 않고 아동들을 내부적으로 타협하게 만들며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거나 이러한 것은 아동들의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도덕 발달과 연관되어 있다(Baumrind, 1991; Dornbusch et al.,

1987; Hoffman & Saltzstein, 1967; Krevans & Gibbs, 1996; Steinberg et al., 1992). 이러한 과정에서 낮은 계층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통제的方法是 아동들에 있어서 비효용성을 불러일으키고 인생에 있어서의 합리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며 언어적 풍부성이 길러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Bradley & Corwyn, 2003).

그러나, 아버지의 직업은 소득과 교육과 강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가정경제적 지위의 지표로 아동 발달과의 연관관계는 기본적으로 학력과 소득을 통한 간접적 효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소득과 학력은 3세와 4세 언어발달과 관계가 있었고 가계의 소득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언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지연과 광금주, 2008), 임순화와 박선희(2010)는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소득수준이 가장 크고, 일상적 스트레스, 교육수준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봉주 등(2010)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가구소득, 부모학력, 부모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개방성, 지역사회환경 및 사회적 지원이 아동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으며 특히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에 가구소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경하와 서소정(2009)은 15~36개월 사이의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가정의 월평균 수입,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을 잘 예견해주는 변인임을 밝혔으나 월평균 수입이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발달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곽금주 등(2007)은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양육스트레스는 빈곤으로 인해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환경 자극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호작용을 가지며 아동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안진상과 김희정(2013)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인식에 따른 건강불평등의 결정요인들 중 아동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청소년은 가구소득이 가장 유효한 건강결정요인으로 보고하였다.

2.2 양육특성과 발달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전반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진 만큼 어머니의 양육특성은 발달에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를 기르는데 있어서 부모 및 양육자들이 사용하는 표준적 전략 및 방법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구조를 말하는 Dariling & Steinbery(1993)는 양육행동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 있어서의 정서적 기후로 정의하였다. Bornstein은 영아기가 갖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양육행동 유형을 보호를 위한 양육(nurturant), 사회적 양육(social), 가르치는 양육(didactic), 물질적인 양육(material)행동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이중 사회적 양육행동(social) 유형은 영아와의 상호 대인적 관계에서 부모들이 사용하는 시각적, 언어적, 애정적, 신체적 행동의 다양한 것들을 말하며 어머니와 영아 사이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애정, 반응성, 상호적 관계를 나타내어 민감성 개념을 포함한다(Bornstein,

1996; 이형민 2006 재인용). 부모가 자녀의 필요에 대해 민감하고 온정적인 행동을 보일수록 영아 및 유아가 부모에 대해 좋은 애착형성을 보이게 되고(홍계옥, 1994) 이는 영아의 언어, 인지, 사회성 발달이 좋으며(Waldfoegel et al., 2002; Ainsworth et al., 1978; Parcel & Elizabeth 1990; Lasko et al., 1999; 민현숙과 문영경 2013), 학령기 아동의 지능 및 학업성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전경숙과 조은영, 1997), 이러한 양육행동들이 아동의 행동·사회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최순자, 2002)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양육행동과 영유아기의 운동·사회·인지 발달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들은 미흡하게 이루어져 왔다.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로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등의 하위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다차원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Abidin, 1992; 임순화와 박선희, 2010 재인용).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를 적절히 양육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bidin, 1992).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정길정과 배윤정, 2005),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영아의 의사소통,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발달수준이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민현숙과 문현경, 2013).

MacPhee(1984)는 양육지식을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이상적인 아동 발달 상태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는 발달 지식, 이상적인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양육방식, 그리고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 및 개인차에 관한 발달원리의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양육지식은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기술을 사용하도록 돕고, 발달에 적절한 환경자극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영아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Shim et al., 2007; Stevens, 1984, 민현숙과 문현경, 2013 재인용). Seo(2006)는 아동 발달에 있어서 적절한 양육지식은 양육기술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적절하고 더 많은 양육지식이 있는 어머니가 더 나은 양육행동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아의 발달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어머니의 양육특성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은 직접적으로 혹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2.3 지역사회 특성과 발달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은 공원, 적절한 보육시설, 의료 이용의 접근성,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의 아동 발달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차이를 가져오며 특히 이웃과 보육시설, 학교에 있어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택의 제한점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는 사람일수록 많은 범죄, 무직인 어른, 비행, 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는 지역 및 지역구성원 간의 협력이나 신뢰 양육행위나 아동교육에 대한 상호감독과 보호, 연대 등 사회적 통합성이 좋지 못한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radley & Corwyn, 2002; Brooks-Gunn & Duncan 1997).

가정이 이웃이나 단체 등 사회관계망으로부터의 인적·물적·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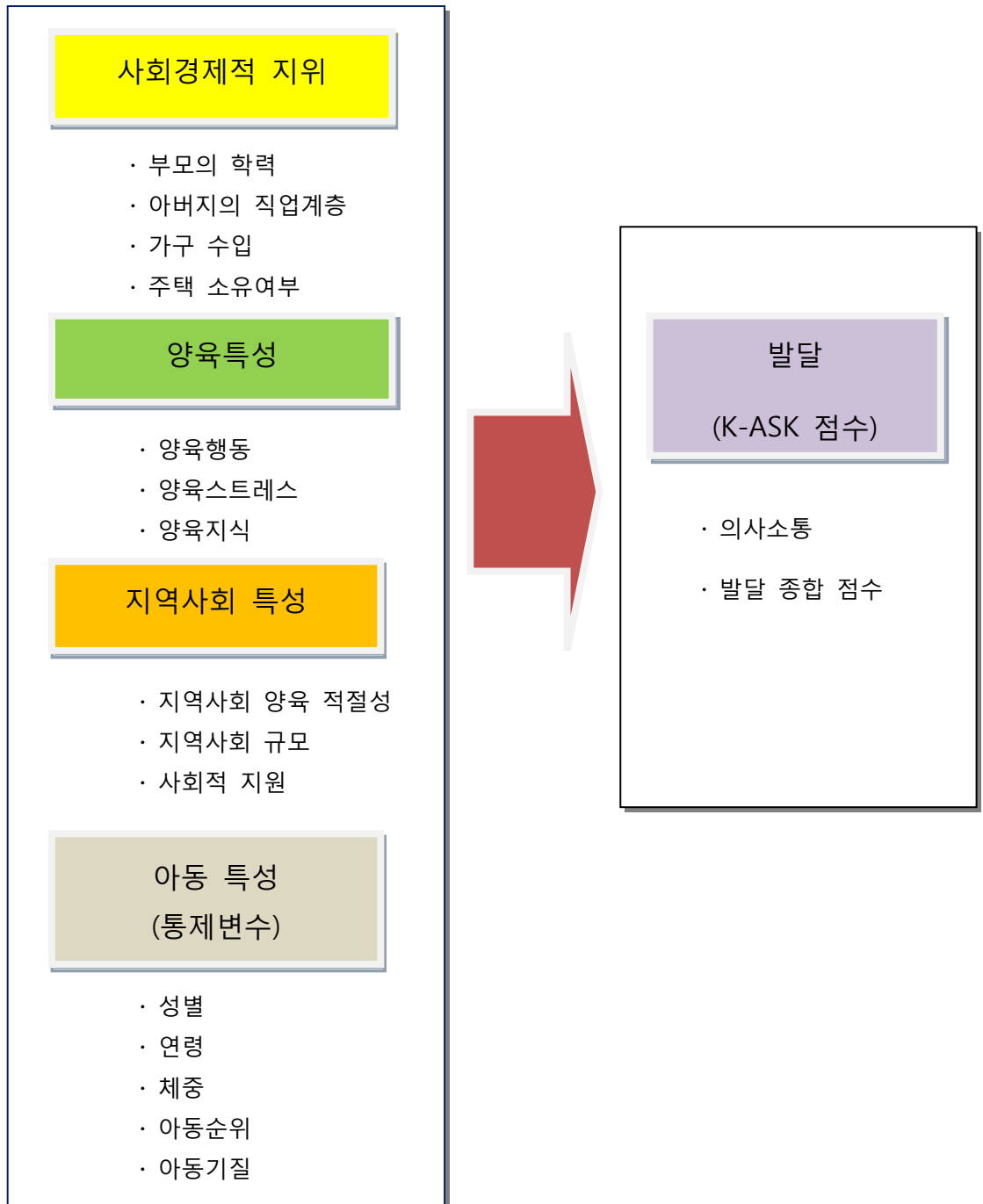
차원의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가정의 경우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이재림과 옥선화, 2001) 아동의 비행가능성이 낮고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이는 성인의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Furstenberg & Hughes, 1995; Morrow, 2000). 특히 아동양육에 대해서 부모의 태도와 행동,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ones et al., 2002).

제 3 장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1]과 같으며 유아의 전반적 발달 및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 유아시기에 정책적 조기 개입의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아동의 성별, 체중, 아동 순위, 아동의 기질을 통제변수로 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유아 발달을 결정하는 요인을 크게 가정적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가정적 요인은 부모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가구 수입, 부를 나타내는 주택 소유 여부 이 네 가지 요소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특성(양육행동,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을 중심으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지역규모, 사회적 지지, 지역 사회 적절성으로 나누어 각 요인들이 유아의 전반적 발달 및 의사소통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려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자료

본 연구에 사용될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연구 2010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아동이 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의 아버지나 어머니 중 귀화인일 경우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중 장애를 가진 가구를 본 연구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909 가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독립변수

(1) 사회경제적 지위

본 연구자료에서 부모의 학력은 무학 및 중학교 졸업이 적은 관계로 고등학교 졸업을 포함하여 이 세 범주를 고등학교 졸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전문대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을 대학교 졸업에 포함시켰다.

아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표하는 것 중 아버지의 직업이 어머니의 직업보다 더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아버지의 직업만을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표하는 직업 지표로 삼았다. 아버지의 직업계층은 통계청의 한국직업표준분류 상의 (1)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사무종사자를 비육체 노동자로 분류하였고, (4)서비스 종사자, (5)판매 종사자,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단순노무종사자를 육체 노동자로

분류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무직, 가사, 군인)를 기타로 분류하였다.

가구 수입은 가구원 수를 보정한 등가소득(equivalent income)을 4분위에 따라 나눈 후 상위(25%), 중위(25~75%), 하위(25%)의 3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간 비교에서 사용하는 가구균등화지수 0.5를 적용하여 수입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text{가구원 수 보정 월 가구수입} = \text{월 가구수입} / \text{가구원수}^{0.5}$$

(2) 어머니 양육특성

① 양육행동

양육행동의 측정은 Bornstein 등이 1996년의 연구에서 개발한 양육스타일(PSQ, Parental Style Questionnaire)을 사용하였다. PSQ는 총 17문항으로 ‘사회적 양육유형(social interaction)’ 9문항, 가르치는 양육유형(didactic/material stimulation)’ 5문항, ‘한계설정 양육유형(limit setting)’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교환의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양육유형 9개 문항을 조사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온정적이고 반응적임을 의미하여 어머니의 전반적 긍정적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행동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89$ 이었다.

②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등을 기초로 하여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의 영역에 해당하는 11개의 문항을 조사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alpha = 0.87$ 이었다.

③ 양육지식

양육지식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MacPhee(2002)가 개발한 KIDI(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를 이용하였으며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패널에서 사용하기에는 KIDI 문항수가 많은 관계로 발달원리 영역의 13개 문항만을 이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정답인 경우 1점, 틀리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0점으로 점수를 부과한 후 합산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지역사회 특성

① 지역사회 양육 적절성

지역사회 양육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는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우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여 매우 좋지 않음은 1점, 매우 좋음은 5점으로 하는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매우 좋음, 좋음, 보통임으로 대답한 경우는 양육 환경 ‘적절’로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부적절’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②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 척도와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및 정현숙(1998)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기초로 하여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가족 외 모든 사람과 단체(교회, 복지관 등)등을 포함하여 사회관계망에 해당하는 모든 구성요소로부터 받은 도움의 합으로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12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alpha = 0.93$ 이었다.

(4) 아동 특성 (통제변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성별, 연령, 체중, 출생 순위, 아동 기질을 조사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중 아동 기질은 각 아동이 타고난 선천적인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인들 중의 하나로 한국아동패널자료에서는 Buss와 Plomin(1984)에 의해 제작된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Temperament Survey)중 부모평정형 EAS를 사용하였고 정서성, 활동성 및

사회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성면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의미하며, 활동성면에서는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님을 의미하고, 아동이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함 사교적임을 의미한다.

2) 종속변수

K-ASQ 발달선별검사는 1980년 미국의 Oregon 대학에서 개발된 ASQ 2판을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 한 것으로 부모가 작성하는 영유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 영유아의 5가지 발달 영역(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에 6개씩 총 30개 문항의 질문지이다. 이 검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영역에 사용되는 검사이며 4개월에서 60개월 사이의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고 영유아의 5가지 발달 영역 각각에 6개씩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유아 발달의 전반적 영역에 사항을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부모가 질문에 답하는 자기기입 방식으로 각 항목에 대하여 보호자는 ‘예(유아가 행동을 수행할 때)’, ‘가끔(행동을 보이기 시작할때)’, ‘아니오(아직 행동을 수행하지 못 할 때)’ 세가지 중 하나로 답하게 되어있다. ‘예’는 10점, ‘가끔’은 5점, ‘아니오’는 0점으로 하여, 발달 영역별로 각 6가지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주어진 월령별 절선 점수(평균으로부터 2표준편차 아래)의 점수와 비교한다. 각 영역별로 60점이 최고 점수이며, 한 개 이상의 발달 영역에서 절선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아이는 ‘발달 지연 의심’, 절선 점수에 일치하거나 근접하는 경우는

‘추후 재검사’ , 모든 영역에서 절선 점수 이상일 경우는 ‘양호’로 판정하게 된다. 사용되는 질문지는 월령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4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2개월 간격, 이후 36개월까지는 3개월간격, 이 후 60개월까지는 6개월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지는 1개월씩 오차를 고려하여 10개월용 질문지는 9-11개월 사이에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각 항목당 총점 및 각 영역별 점수의 합산 점수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대근육운동의 Cronbach $\alpha=0.46$, 소근육운동 Cronbach $\alpha=0.55$, 의사소통 Cronbach $\alpha=0.68$, 문제해결 Cronbach $\alpha=0.47$, 개인-사회성 Cronbach $\alpha= .63$, 이었다. 전반적인 발달(종합) Cronbach $\alpha= 0.79$ 이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ver.17.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과 전반적인 발달, 의사소통 발달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으며 전반적인 발달과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과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표 1] 종속 변수 및 독립 변수 측정

변수구분	변수명	측정지표
종속변수	의사소통	K-ASQ 영역 중 의사소통 점수를 측정. 총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당 0 점, 5 점, 10 점으로 점수화한 후 합산하여 측정
	:발달 전반적 발달	K-ASQ 5 개 영역(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의사소통, 개인사회성, 문제해결)의 총합. 각 영역은 총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당 0 점, 5 점, 10 점으로 점수화한 후 합산하여 측정
독립변수 :사회경제적 지위	부 학력	아버지의 최종 학력을 대졸과 고졸로 분류함
	모 학력	아버지의 최종 학력을 대졸과 고졸로 분류함
	부 직업계층	표준직업분류상의 (1)~(4)에 해당하는 직업군을 비육체로 (5)~(9)에 해당하는 직업군을 육체로 무직, 가사, 군인등을 기타로 분류함
	가구 수입	가구원 수를 보정한 등가소득을 4 분위에 따라 나눈 후 상위(25%), 중위(25~75%), 하위(25%)로 분류함
	거주 주택의 소유	거주 주택 자가인 경우와 전세·월세·무상·공공임대 등을 기타로 분류함
:양육 특성	양육 행동	자녀에 대한 긍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9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 점의 Likert 척도로 평정됨.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온정적이고 반응적임을 의미함
	양육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11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 점 Likert 척도로 평점됨.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함
	양육 지식	양육지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13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인 경우 1 점, 아닌 경우를 0 점으로 부과한 후 합산 점수를 사용함.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양육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 양육 적절성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적절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적절=1, 부적절=0

통제변수 :아동의 특성	지역사회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분류함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12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 점 Likert 척도로 평정됨.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성별	남자와 여자
	연령	아동의 월령
	체중	아동의 체중
	아동의 순위	아동의 출생 순위
아동기질		아동의 정서성(5 문항), 활동성(5 문항), 사회성(10 문항) 기질을 각 문항당 5 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여 측정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좋으며 더욱 활동적이나 정서면에서는 부정적임을 의미함

제 4 장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 69.2%, 어머니의 대학교 졸업이 65.9%로 전문대학교 이상의 대학졸업이 전체의 2/3이상이었다. 아버지의 직업계층으로는 전문직, 사무직 등의 비육체로 분류된 집단이 56.3%로 생산직이나 단순 노무직 등의 육체에 속한 집단(38.7%) 보다 더 많았으며 군인이나 무직을 포함한 기타는 1.5%로 상대적으로 비육체나 육체군에 비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구 수입은 가구원 수를 고려한 등가수입으로써 4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상위 25%는 201만원 이상이었고 하위 25%는 116만원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전세, 월세, 임대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기타로 분류된 가구가 51.5%로 주택을 소유한 가구(48.5%)보다 조금 더 많았다.

부모의 양육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행동은 45점 만점에 34.2점, 양육스트레스는 55점 만점에 30.6점, 양육지식은 13점 만점에 9.3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 양상을 보였다.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양육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82.5%로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17.4%)보다 많게 조사되었으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는(22%)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78%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아동 중 남자가 51.6%, 여자가 48.4%였으며 연령은 평균 25.7개월, 체중은 12.6kg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이 첫째(47.1%), 둘째(41.7%)였으며 셋째 이상의 아동은 전체 중

11.3%로 조사되었다. 아동기질의 문항에 대해서는 사회성은 평균 32점, 정서성은 평균 16.2점, 활동성은 평균 13.5점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명)	백분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 학력	대졸	629	69.2
	고졸	230	25.3
모 학력	대졸	599	65.9
	고졸	249	27.4
부 직업계층	비육체	512	56.3
	육체	352	38.7
	기타	14	1.5
가구 수입	201 만원 이상	221	24.3
	116-201 만원 미만	427	47
	0-116 만원 미만	261	28.7
거주 주택의 소유	자가	441	48.5
	기타	468	51.5
어머니의 양육특성			
양육행동 (평균/표준편차)		904	34.2(4.7)
양육스트레스(평균/표준편차)		902	30.6(6.9)
양육지식 (평균/표준편차)		909	9.3(2.1)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 양육 적절성	적절	750	82.5
	부적절	158	17.4
지역사회 규모	대도시	352	38.7
	중소도시	357	39.3
	읍면지역	200	22
사회적 지원(평균/표준편차)		903	46.5(7.5)
아동의 특성			
성별	남자	469	51.6
	여자	440	48.4
연령 (평균/표준편차)		909	25.7(1.3)
체중 (평균/표준편차)		908	12.6(1.4)
아동의 순위	1	428	47.1
	2	379	41.7
	3	95	10.5
	4	6	0.7
	5	1	0.1
아동기질 (평균/표준편차)	사회성	907	32.0(2.3)
	정서성	901	16.2(2.0)
	활동성	908	13.5(1.8)

2. 소득계층별, 지역 규모별 연구대상의 특성

[표3]은 연구대상의 특성을 소득계층별, 거주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소득에 따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특성,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가 많았으며 직업계층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비율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보다 많았고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각 양육특성들의 점수 차이가 있었는데 아동들의 요구에 민감하고 더 애정적인 것을 평가하는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행동 및 양육지식의 점수가 높아짐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 특성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가 아동의 양육에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적절하다는 점수가 더 높아짐을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지원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이 높고 직업이 비육체 속할수록 농촌지역보다 도시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집단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집단보다 더 아동들의 요구에 민감하거나 애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양육지식에는 도시 지역의 거주민들이 읍면지역의 거주민들보다 더 많은 육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스트레스면에서는 읍면지역이 중소도시 지역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룹은 양육하기에 도시보단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회에서 받는 지원은 읍면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단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 소득계층별, 지역 규모별 분석

단위: 명(%)

			소득 계층		
			116 만원 미만	116-201 만원 미만	201 만원 이상
사회경제적 지위	부학력	대졸	156(63%)	300(75%)	173(83%)
		고졸	93(37%)	102(25%)	35(17%)
	모학력	대졸	128(53%)	290(73%)	181(86%)
		고졸	113(47%)	107(27%)	29(14%)
	직업	비육체	112(45%)	256(62%)	144(67%)
		육체	132(53%)	154(37%)	66(31%)
		기타	3(1%)	6(1%)	5(2%)
	주택소유	자가	103(39%)	208(49%)	130(59%)
		기타	158(61%)	219(51%)	91(41%)
양육특성 평균(표준편차)	양육행동		33.43(4.85)	34.41(4.62)	34.77(4.58)
	양육스트레스		31.64(7.29)	30.30(6.78)	29.77(6.73)
	양육지식		8.98(2.24)	9.35(2.04)	9.47(2.20)
지역 특성 평균(표준편차)	양육 적절성		0.75(0.43)	0.84(0.37)	0.90(0.31)
	사회적 지원		45.02(8.03)	46.77(6.96)	47.64(7.48)
			지역 규모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사회경제적 지위	부학력	대졸	123(65%)	253(75%)	253(76%)
		고졸	66(35%)	86(25%)	78(24%)
	모학력	대졸	110(60%)	245(73%)	244(74%)
		고졸	73(40%)	89(27%)	87(26%)
	직업	비육체	99(52%)	215(62%)	198(59%)
		육체	90(47%)	131(37%)	131(38%)
		기타	2(1%)	3(1%)	9(2%)
	주택소유	자가	92(46%)	172(48%)	177(50%)
		기타	108(54%)	185(52%)	175(49%)
양육특성 평균(표준편차)	양육행동		34.47(4.16)	34.21(4.99)	34.08(4.70)
	양육스트레스		30.31(6.95)	30.97(6.66)	30.29(7.15)
	양육지식		9.02(2.22)	9.43(2.14)	9.27(2.10)
지역 특성 평균(표준편차)	양육 적절성		0.79(0.41)	0.84(0.36)	0.83(0.37)
	사회적 지원		46.75(7.45)	46.99(7.32)	45.80(7.59)

3.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사회 특성과 발달과의 관계

[표4]는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발달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시행한 것을 보여준다.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의사소통,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및 발달 총합의 점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높고,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비육체에 속하며 가구 수입이 높고 주택을 소유했을 때 발달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양육하기에 주거하는 지역이 적절하다고 생각할수록 전반적으로 좋은 발달 점수를 보였다. 반면 지역사회 규모에 따른 각 발달 영역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다 소근육운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더 높은 발달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대근육운동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것이 대근육운동 발달 점수가 높게 조사되었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대도시 지역에 사는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근육운동에서는 양육하기에 적절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발달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언어 발달면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비육체에 속할수록 고소득의 가정환경일수록 의사소통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지역사회 특성 중 양육 환경이 좋다고 응답한 그룹의 언어발달이 더 좋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해결 영역에서는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이 개인사회성 부문에서는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발달의 총점면에서는 가구 수입 및 지역사회 양육 적절성이 통계적 의미가 있었다.

[표 4]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발달의 차이(1)

		빈도	대근육운동 M(SD)	t/F	소근육운동 M(SD)	t/F	의사소통 M(SD)	t/F
사회경제적 지위								
부 학력	대졸	629	57.04 (5.80)	-0.21	53.33(8.49)	-0.16	53.72(10.07)	2.07*
	고졸	230	57.13(6.25)		53.43(9.38)		51.87(12.09)	
모 학력	대졸	599	56.80(6.18)	-3.33**	53.24(8.80)	-0.293	53.81(10.20)	1.88+
	고졸	249	58.11(4.76)		53.43(8.85)		52.22(11.51)	
부 직업계층	비육체 ^a	512	57.14(5.87)	0.42	53.43(8.72)	1.85	54.32 (9.49)	5.18* a>b
	육체 ^b	352	57.02(5.97)		53.05(8.95)		52.10(11.69)	
	기타 ^c	14	55.71(4.32)		48.93(11.30)		49.64(10.82)	
가구 수입	201 만원 이상 ^a	221	57.29(5.47)	0.27	53.24(8.32)	0.15	55.81 (8.22)	13.52*** a>b>c
	116-201 만원 ^b	427	57.10(5.89)		53.10(9.22)		53.28(10.56)	
	116 만원 미만 ^c	261	56.90(6.18)		53.49(8.52)		51.17(11.91)	
주택의 소유	자가	441	57.19(5.88)	0.49	53.43(8.80)	0.63	53.46 (9.81)	0.47
	기타	468	56.60(5.87)		53.07(8.81)		53.13(11.28)	
지역사회 특성								
양육 적절성	적절	750	57.03(5.92)	-0.67	53.49(8.56)	1.67+	53.55(10.51)	1.69+
	부적절	158	57.37(5.69)		52.09(9.84)		51.99(10.91)	
지역사회 규모	대도시 ^a	352	56.45(6.51)	5.386**	53.01(8.99)	1.1	52.19(11.56)	2.924+ b>a
	중소도시 ^b	357	57.82(4.81)		53.77(8.30)		53.92 (9.77)	
	읍면지역 ^c	200	56.93(6.29)		52.73(9.32)		54.10(10.08)	

+ $p<0.1$, * $p<0.05$, ** $p<0.01$, *** $p<0.001$

[표 4]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발달의 차이(2)

		빈도	문제해결 M(SD)	t/F	개인/사회성 M(SD)	t/F	총합 M(SD)	t/F
사회경제적 지위								
부 학력	대졸	629	54.48(7.78)	0.76	55.04(8.57)	-0.84	273.61(26.27)	0.72
	고졸	230	54.02(8.01)		55.58(8.05)		272.04(32.36)	
모 학력	대졸	599	54.60(7.56)	1.4	55.16(8.45)	-0.161	273.62(27.58)	0.37
	고졸	249	53.80(8.20)		55.26(8.40)		272.83(29.23)	
부 직업계층	비육체 ^a	512	54.61(7.89)	1.4	55.57(8.35)	2.59 ⁺	275.06(26.55)	4.47
	육체 ^b	352	53.89(7.80)		55.01(8.18)		271.08(29.75)	
	기타 ^c	14	52.14(8.48)		50.71(10.89)		257.14(28.74)	
가구 수입	201 만원 이상 ^a	221	55.18(7.20)	1.66	55.75(7.37)	0.62	277.26(21.51)	4.71 ^{**}
	116-201 만원 ^b	427	54.17(7.85)		55.11(8.78)		272.76(29.36)	
	116 만원 미만 ^c	261	53.98(8.15)		54.94(8.47)		270.48(30.03)	
주택의 소유	자가	441	54.35(7.86)	-0.03	55.53(7.92)	1.12	273.97(26.40)	0.8
	기타	468	54.37(7.73)		54.91(8.77)		272.48(29.33)	
지역사회 특성								
양육 적절성	적절	750	54.61(7.62)	2.08 [*]	55.36(8.17)	0.94	274.05(27.47)	1.85 ⁺
	부적절	158	53.20(8.51)		54.62(9.18)		269.27(29.97)	
지역사회 규모	대도시 ^a	352	54.42(7.82)	0.17	54.49(9.07)	2.03	270.55(29.93)	2.70 ⁺
	중소도시 ^b	357	54.19(7.74)		55.69(7.82)		275.38(25.52)	
	읍면지역 ^c	200	54.58(7.87)		55.65(7.98)		273.98(28.24)	

+ $p<0.1$, * $p<0.05$, ** $p<0.01$, *** $p<0.001$

4. 어머니 양육특성, 사회지원과 발달과의 관계

[표5]는 양육특성 및 사회지원과 발달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각 발달 영역간에는 모두 강한 연관성이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양육특성 간에는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적고 양육지식이 높은 양상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양육특성 중 아동들의 요구에 민감하고 더 애정적인 것을 평가하는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대근육운동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의 발달이 좋았고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아동의 대근육운동, 의사소통, 발달 종합 점수면에서 발달 점수가 낮은 양상을 보였고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지역사회 특성 중 외부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소근육운동, 의사소통, 발달 종합 면에서 높은 점수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5] 발달과 양육특성 변수, 사회지원 변수 간의 상관관계

	양육행동	스트레스	양육지식	사회지원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의사소통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발달총합
양육행동	1									
스트레스	-.440**	1								
양육지식	.094**	-.076*	1							
사회지원	.362**	-.271**	.141**	1						
대근육	0.023	-.072*	-0.023	0.055	1					
소근육	.074*	-0.027	-0.017	.069*	.208**	1				
소통	.177**	-.142**	0.024	.112**	.246**	.301**	1			
문제해결	.085*	-0.042	0.014	0.057	.251**	.463**	.414**	1		
개인사회성	.082*	-0.053	0.025	0.02	.205**	.303**	.305**	.341**	1	
발달총합	.144**	-.105**	0.011	.097**	.500**	.693**	.732**	.736**	.649**	1

* $p<0.1$, * $p<0.05$, ** $p<0.01$, *** $p<0.001$

5.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이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특성을 통제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 차례로 변수로 투입하여 각 특성 중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먼저 모델 1을 살펴보면 아동의 특성은 전반적 발달을 4.6% 설명하고 있으며 이중 성별은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남아 보단 여아의 발달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아동 특성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가하여 분석한 것으로 모델 1에 비해 전반적 발달을 1.5% 더 설명하였다(6.1%). 모델 2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중 아버지의 직업인 비육체인 아동과 가정의 수입이 증가소득으로 201만원 이상인 아동의 발달 종합점수가 각각 아버지의 직업이 육체의 직업군으로 분류된 아동과 소득이 116만원 미만인 가정의 아동보다 전반적 발달이 좋았으며 이에 수입과 아버지의 직업이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있어 유의한 설명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3은 모델 2에서 어머니의 양육특성을 추가한 것으로 7.3%에 대해 아동 발달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델 2와 같이 성별, 아버지의 직업, 수입이 전반적 발달에 유의한 설명변수로 작용하였고 양육특성 중 어머니가 더욱더 민감하고 긍정적이며 아이의 요구에 대해 잘 들어주는 양육행동을 보였을 때 아동이 발달에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모델 4는 아동 발달에 대해 8.4% 설명하고 있으며 성별, 아버지의 직업, 양육행동은 여전히 설명변수로 아동 발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지만 수입이나 지역 특성은 아동 발달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발달을 높일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성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버지의 직업, 양육행동 순으로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표 6]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Model 1 : 아동특성			Model 2 : 사회경제적 지위			Model 3 : 양육특성			Model 4 : 지역사회 특성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Constant)		290.987		10.639***	291.321		10.624***	280.952		9.586***	278.047		9.371***
성별 (Ref:여)	남자	-11.211	-.202	-5.412***	-10.924	-.197	-5.227***	-10.460	-.188	-5.057***	-10.533	-.190	-5.094***
연령		-1.332	-.060	-1.654 ⁺	-1.447	-.065	-1.791 ⁺	-1.456	-.066	-1.804 ⁺	-1.432	-.065	-1.777 ⁺
체중		1.079	.055	1.473	1.024	.053	1.391	.784	.040	1.062	.801	.041	1.087
아동순위		-1.780	-.045	-1.225	-1.829	-.046	-1.254	-1.405	-.035	-.962	-1.644	-.041	-1.127
아동기질	사회성	.113	.009	.250	.051	.004	.112	-.007	-.001	-.016	-.088	-.007	-.194
	정서성	-.259	-.019	-.510	-.173	-.013	-.340	-.005	.000	-.010	-.034	-.002	-.065
	활동성	.927	.060	1.657 ⁺	.920	.059	1.640	.922	.059	1.647	.967	.062	1.731 ⁺
부학력(Ref:고졸)	부대졸				.519	.008	.185	-.160	-.003	-.057	-.268	-.004	-.096
모학력(Ref:고졸)	모대졸				-3.140	-.051	-1.140	-3.306	-.054	-1.199	-3.417	-.055	-1.239
부직업(Ref:육체)	비육체				4.630	.082	2.116 [*]	4.564	.081	2.093 [*]	4.595	.081	2.111 [*]
	기타				-9.161	-.038	-1.032	-9.836	-.041	-1.112	-9.128	-.038	-1.032
수입(Ref:116 만원 미만)	201 만원이상				5.674	.088	1.962 [*]	5.036	.078	1.741 ⁺	4.492	.070	1.544
	116-201 미만				2.654	.048	1.093	2.103	.038	.866	1.908	.034	.787

주택 소유여부(Ref:기타)	주택		1.101	.020	.546	.784	.014	.388	.805	.015	.400
양육 행동						.555	.091	2.298 [*]	.454	.075	1.830 ⁺
스트레스						-.161	-.040	-.993	-.139	-.034	-.846
양육 지식						-.107	-.008	-.224	-.185	-.014	-.385
지역적 절성(Ref: 좋지 않음)	좋은								2.877	.038	1.040
지역 규모(Ref: 읍면지역)	대도시								-4.008	-.070	-1.489
	중소도시								1.459	.026	.543
사회 지원	사회 지원								.157	.042	1.067
R2			.046		.061		.073		.084		
F			5.109 ^{***}		3.416 ^{***}		3.385 ^{***}		3.188 ^{***}		
R2 change					.015		0.012 [*]		0.011 ⁺		

6.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이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특성을 통제한 가운데 각 특성을 차례로 변수로 투입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이 발달 중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먼저 모델 1을 살펴보면 아동의 특성은 의사소통 발달을 7.1% 설명하고 있으며 이중 성별, 연령, 체중은 유의한 설명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남아 보단 여아가 연령과 체중이 증가할수록 의사소통 발달이 높게 나타났다. 모델 2는 아동 특성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가하여 분석한 것으로 모델 1에 비해 3.2% 증가한 10.2%를 의사소통 발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델 2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중 아버지의 직업인 비육체인 아동과 가정의 수입이 증가소득으로 201만원 이상 아동과 116-201만원인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이 아버지의 직업이 육체의 직업군으로 분류된 아동보다 소득이 116만원 미만인 가정의 아동보다 의사소통 발달이 좋았으며 이에 수입과 아버지의 직업이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있어 유의한 설명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3은 모델 2에서 어머니의 양육특성을 추가한 것으로 12.5%에 대해 아동 발달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델 2와 같이 성별, 연령, 아버지의 직업, 수입이 의사소통 발달에 유의한 설명변수로 작용하였고 양육특성 중 어머니가 더욱더 민감하고 긍정적이며 아이의 요구에 대해 잘 들어주는 양육행동을 보였을 때 아동이 의사소통 발달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4는 아동 발달에 대해 13.7% 설명하고 있으며 성별, 연령, 아버지의 직업, 수입, 양육행동은 여전히 설명변수로 아동

발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고 지역 특성 중 대도시에 살고 있는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이 읍면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보다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

의사소통 발달에 관여하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성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입, 연령, 양육행동, 지역규모, 아버지의 직업 순으로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표 7]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Model 1 : 아동특성			Model 2 : 사회경제적 지위			Model 3 : 양육특성			Model 4 : 지역사회 특성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Constant)		23.862		2.361 [*]	23.696		2.361 [*]	19.138		1.796 ⁺	18.980		1.760 ⁺
성별 (Ref:여)	남	-4.483	-.216	-5.858 ^{***}	-4.326	-.208	-5.711 ^{***}	-4.082	-.197	-5.427 ^{***}	-4.086	-.197	-5.439 ^{***}
연령		1.198	.145	4.027 ^{***}	1.118	.135	3.781 ^{***}	1.109	.134	3.779 ^{***}	1.106	.134	3.775 ^{***}
체중		.473	.065	1.746 ⁺	.413	.057	1.533	.288	.040	1.074	.285	.039	1.063
아동순위		-.573	-.038	-1.068	-.455	-.030	-.853	-.238	-.016	-.447	-.336	-.022	-.633
아동기질	사회성	-.138	-.030	-.826	-.170	-.037	-1.031	-.196	-.043	-1.192	-.235	-.052	-1.430
	정서성	-.114	-.023	-.609	-.071	-.014	-.383	.020	.004	.106	.002	.000	.012
	활동성	.175	.030	.845	.189	.033	.922	.188	.032	.922	.207	.036	1.019
부학력 (Ref:고졸)	부대졸				.063	.003	.061	-.281	-.012	-.276	-.311	-.013	-.305
모학력 (Ref:고졸)	모대졸				-.237	-.010	-.235	-.313	-.014	-.313	-.295	-.013	-.294
부직업 (Ref:육체)	비육체				1.858	.088	2.321 [*]	1.830	.087	2.308 [*]	1.877	.089	2.372 [*]
	기타				-2.092	-.023	-.644	-2.422	-.027	-.753	-2.146	-.024	-.668
수입 (Ref:116 만원 미만)	201 만원이상				4.149	.172	3.920 ^{***}	3.821	.159	3.632 ^{***}	3.715	.154	3.513 ^{***}
	116-201 미만				2.191	.105	2.466 [*]	1.912	.092	2.166 [*]	1.827	.088	2.074 [*]
주택 소유여부 (Ref:기타)	자가				-.325	-.016	-.440	-.490	-.024	-.667	-.479	-.023	-.654

양육행동			.276	.121	3.149**	.232	.102	2.574*
스트레스			-.093	-.061	-1.581 ⁺	-.082	-.054	-1.366
양육지식			-.077	-.016	-.441	-.104	-.022	-.598
지역적절성 (Ref: 좋지않음)	좋음					.731	.026	.727
지역규모 (Ref: 읍면지역)	대도시					-2.061	-.097	-2.107*
	중소도시					-.202	-.010	-.207
사회지원						.074	.053	1.386
R2		.071	.102	.125	.137			
F		8.073****	6.012***	6.167***	5.503***			
R2 change			0.032***	0.022***	0.01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

제 5 장 고찰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전반적인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유아 발달의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과업을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의사소통, 개인사회성, 문제해결이라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눈 발달 검사를 통해 비교적 이른 시기인 2세 유아의 전반적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 발달의 불평등적 요소의 조기 개입을 통한 발달적 향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특정 변수에 대한 보정 변수가 아닌 발달에 대한 주된 연구 관심사로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특성, 지역 특성이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아버지의 직업, 수입, 어머니의 양육행동, 지역규모 등은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밝혀졌다.

각 영역을 특성별로 살펴볼 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중 부모의 학력은 유아기 아동 발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학력 중 특히 어머니의 학력이 아동초기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문헌들에서의 보고(곽금주, 2008; Hart & Risley, 1992)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연구는 만 3세 이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23개월부터 30개월까지의 대부분 만 2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언어발달이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대상 연령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아동 발달 및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젊은 연령층이 대부분 대졸 학력을 갖게 됨에 따라 교육수준이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로서 지니는 변별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대졸 학력 안에서도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 대학원졸업을 모두 포함하였으므로 대학교 졸업에서도 암묵적 서열이 있는 만큼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의 학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를 올바르게 대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의 직업계층은 유아의 전반적 발달 및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아의 아버지가 비육체에 종사하는 경우 아버지의 직업이 육체에 속하는 유아보다 전반적 발달 및 의사소통 발달이 더 좋았으며 이는 낮은 계층일수록 통제적·강압적 수단을 통해 아동들과 합리적으로 소통하지 못해 언어적 풍부성이 길러지지 못한다는 Kohn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Kohn이 주장한 것처럼 직업계층의 특성상 낮은 계층의 아버지는 복종과 규칙에 대한 순응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이는 자녀들의 행동과 언어에 영향을 미쳐 아동들의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도덕 발달과 연관되어 있다는 기전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또한 비육체 노동자에 비해 육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대한 많은 불안감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부부간의 갈등 및 아동의 훈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비육체에 종사하는 가정의 수입이 육체나 기타에 종사하는 가정보다 높다는 사실은 수입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발달 및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자극 및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가구 수입은 전반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소통 발달에 있어서는 성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이 더 좋았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의사소통 발달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가정의 수입이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곽금주, 2008; Hart & Risley, 1992)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본 연구에서는 23개월 이상의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는 이른 시기부터 수입에 따른 의사소통 발달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가구 수입이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은 직접적 요인보다는 아동 발달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및 주양육자의 양육특성에 대한 영향을 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수입이 높을수록 양육행동, 양육지식이 점수가 높았고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점수가 낮았으며 지역사회적 적절성 및 사회적 지원 또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수입은 여러 형태의 환경적 요소 및 양육특성에 영향을 미침으로 아동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주택의 소유는 사회경제적 부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본 연구에서 아동 발달과의 관계를 보는 설명변수로 포함시켰으나 이에 대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역마다 전·월세의 가격차이 및 주택의 시세가 다르므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부를 대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차이로 인해 발달과의 연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어머니의 양육특성을 양육행동, 스트레스, 양육지식과 발달과의 관계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는데 양육행동은 전반적인 발달 및 의사소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명변수였다. 에릭슨과 피아제의 이론 및 역동적 운동체계이론에서 강조하였던 자녀 요구에 대한 적절한 반응 및 긍정적 자극이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각 양육특성들 간에는 연관관계가 있었는데 양육행동은 양육지식과 정의 관계, 양육스트레스와 부의 관계에 있었고 양육스트레스와 지식과는 부의 관계로 조사되었다.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민감성과 온정성을 가진 양육행동을 하는 것인지, 양육행동이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었으나 이러한 양육특성이 2세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관계성이 있다는 것은 입증할 수 있었다. 특히 부모가 민감하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아동을 대할 때 전반적인 아동의 발달이 좋았으며 특히 의사소통 면에서는 성별, 수입, 월령 다음으로 발달차이를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인지 및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기존의 심리분석 이론에 부합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아 및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 일치한다(Waldfoegel et al., 2002; Ainsworth et al, 1978; Parcel & Elizabeth, 1990; Lasko et al., 1999; 민현숙과 문영경 2013). 양육행동이 2세 유아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만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에 놓여 있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가정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행동의 차이가 있는 만큼 수입과 양육행동과의 인과 관계의 규명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발달에 영향에 대한 경로를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정책을 수립할 때 개입의 단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양육지식이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eo, 2006; 민현숙과 문현경, 2013)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발달과는 큰 연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양육지식이 양육행동 및 스트레스와 각각 정과 부의 관계에 있는 것을 볼 때 발달에 직접적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다른 양육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영향을 줌으로써(Seo, 2006; 민현숙과 문현경, 2013)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전반적 발달 및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것을 추정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아동스트레스는 대근육운동, 의사소통 및 전반적 발달과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회귀분석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과 부의 관계에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러 문헌을 통해(안지영과 박성연, 2002; 김말경과 박혜원, 2008) 양육행동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증명된 만큼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발달, 특히 의사소통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지역사회 특성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사회 양육 환경이 좋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소근육운동, 언어발달, 문제해결 영역의 발달에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역환경의 적절성이 전반적인 발달과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면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그룹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발달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 및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 읍면도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다른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양육특성 중 양육행동이 대도시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양육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사회적 지원 등의 양육자를 둘러싸고 있는 지지적 환경이 대도시보다 높았고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도시보다 읍면지역 아동들의 의사소통 발달이 더욱더 좋을 수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겠다. 또한 대도시내에서도 여러 지역간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편차가 있는 만큼 대도시의 저소득층이 본 연구에 많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발달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소근육운동, 의사소통, 전반적인 발달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분석에서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과 양육지식, 양육행동과 정의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와는 부의 관계가 성립되었고 이에 대한 인과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회적 지지는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 발달과,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책적인 접근에 대한 필요성에 몇가지 함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아버지의 직업과 수입은 유아의 의사소통에 일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아버지의 직업, 수입이 낮을수록 유아의 언어발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언어발달이 인지적 능력과 학업성취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조기 개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지위의 해결이 가정 문제의 해결 및 의사소통 발달의 해법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 중 경제적 요인이 가족의 구조와 관계특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아동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가정의 소득 보장 및 아버지의 일자리의 중요성은 정부 정책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중요한 만큼 양육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양육지식,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는 각 요소가 연관관계를 가진 만큼 이러한 세가지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별적이면서도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부모 혹은 주양육자가 집과 일에 균형잡히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취업중인 어머니의 자녀를 위한 주거 지역에 근거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WHO는 태아부터 8세까지의 아동 발달의 시기를 사회적 결정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여 아동의 유전 및 생물학적 요인,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의 환경, 거주 및 관계적 공동, 프로그램과 서비스, 지역 및 국가 수준, 전세계적 차원, 시민 사회 등으로 구분하여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건강 불평등 요소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비교적 이른 시기인 2세 유아에도 발달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 및 환원론적 시각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아동이 선택하지도 않은 가정 환경에 따라 발달의 출발점을 달리 한다는 것은 발달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란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맞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불평등한 환경인 만큼 변화시키려는 의지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아동의 건강 불평등 해소의 노력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형 영유아 발달 검사는 발달에 있어서의 선별검사라는 점이다. 이 검사의 유용성은 정상 점수의 2SD만큼 떨어진 영유아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각 영역별 점수의 높고 낮음이 발달의 차이를 가늠할 수는 있으나 발달이 느리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 발달을 측정함에 있어 주양육자의 주관적 관찰을 통해 설문으로 조사된 만큼 전문가에 의해 관찰되고 기록된 객관적 발달 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특성에서 관찰법이 아닌 자가 보고 형식으로 기술되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어머니의 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단면연구의 한계점으로 현재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현 시점에서의 아동 발달 차이가 장래 여러 요인을 통해 바뀔 여지가 있는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구인회, 임세희(2007). 1990년대 이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불평등 악화의 요인분해: 개인 근로소득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pp 5-27.
- 곽금주, 김정미, 유제민(2007). 만 3세 아동에 대한 빈곤, 부모변인, 가정환경 및 아동 발달과의 관계. 한국발달심리학회지 20(3), pp 83-98.
- 김광혁(2012).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아동 발달. 집문당.
- 김말경, 박혜원(2008). 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와 K-BSID-2 수행간의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중재효과 탐색. 아동학회지 29(1), pp 243-255.
- 김명희, 전경자, 서상희(2011). 아동기의 건강불평등: 사회적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176, pp 32-44.
- 김창엽(2004). 사회경제적 지위의 측정: 의미와 장단점.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워크샵.
- 김창엽(2009). 왜 건강불평등이 문제인가?. 비판사회학회 불평등연구회,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공동 학술대회,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 자료집, pp 22~29.
- 민현숙, 문영경(2013).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달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22(1), pp 43-56.
- 방하남, 김기현(2001). 변화와 세습: 한국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 사회학 35(3), pp 1~30.
- 아동 발달(2007). Laura E. Berk 저. 박남자 등 역, 정민사. pp 201-520.
- 안지영, 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pp 53-68.
- 안진상, 김희정(2013). 아동·청소년의 건강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2), pp 205-231.
- 윤형주, 조복희(200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가정의 양육환경 및 그 관계성에 관한 연구. 미래교육학회지 11(2), pp 59-88.
- 이경하, 서소정(2009).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적 특성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3), pp 87-102.
- 이봉주, 김선숙, 김남희(2010). 한국 아동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1, pp 107-141.
- 이삼식, 이소정(2011).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171, pp 59-68.
- 이재림, 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159, pp 49-63.
- 이지연, 박금주(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1(3), pp 151-165.
- 이형민(2006). 어머니의 양육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임순화, 박선희(2010).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수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pp 251-278.
- 전경숙, 조은영(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 심리적 안정도, 결혼만족

- 및 아동특성이 유치원 아동의 애착행동과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4, pp 113-133.
- 정길정, 배윤정(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아동의 놀이형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4(3), pp 365-378.
- 정진호, 황덕순, 이병희, 최강식(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2008). 인간발달: 발달 심리적 접근. 교문사. pp 117-235.
- 조홍준(2003). 빈곤과 건강, 제 3장 불평등과 건강, 한울아카데미. 김창엽 엮음. pp 75-91.
- 최순자(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만 3세에서 6세아의 도덕적 행동의 검토. 교육심리연구 16(3), pp 197-219.
- 최용준, 정백근, 조성일, 정최경희, 장숙량, 강민아, 강영호(2007). 건강 불평등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의 개념과 활용. 예방의학회지 40(6), pp475-486.
- 홍계옥(1994). 유치원 유아의 모자간 애착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지적 발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2(4), pp 181-191.
- 홍창의 소아과학(2004). 제 8판, pp 31-45.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pp 407-412.
- Ainsworth, M.D.S.Blehar, M.C., Water,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Erbaum.
- Backlund E, Sortie PD, Johnson NJ(1996). The shape of the

-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mortality study. *Ann Epidemiol* 6, pp 12-20.
- Baumrind, D.(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pp 56-95.
- Bax, M., Whitmore, K.(1987). The medical examination of children on entry to school. The results and use of neurodevelopmental assessment.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29, pp 40-55.
- Bean, R.A., Bush, K. R., McKenry, P.C., & Wilson, S. M.(2003). The impact of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of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5), pp 523-541.
- Becker, G.S and Tomes, N.(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pp S1-S39.
- Belsky J, Fearon RM.(2002).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contextual risk, and early development: a moderational analysi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4(2), pp 293-310.
- Bronfenbrenner, U.(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pp 844-850.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pp 347-367.
- Bradley, R. H., Caldwell, B. M., Rock, S., Ramey, C. T., Barnard, K. E., Gray, C., Hammond, M. A., Mitchell, S., Gottfried, A. W.,

- Siegel, L., & Johnson, D. L.(1989). Home environ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the first 3 years of life: A collaborative study involving six sites and three ethnic groups in North America. *Developmental Psychology* 25, pp 217–235.
- Bradley, R.H., Corwyn, R.F.(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pp 371-399.
- Brooks-Gunn, J., Duncan G.(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pp 55-71.
- Conger, R.D., Conger, K.J. and Elder, G.(1997).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adjustment: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 pp 288-310.
- Conger, R. D.,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McLoyd, V. C., Brody, G. H.(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pp 179-193.
- Coleman, J. C.(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 S95-120.
- Cowan, C., & Cowan, P.(1995). Interventions to ease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Why they are needed and what they can do. *Family Relations* 44, pp 412–423.
- Darling, N., & Steinberg, L.(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 Darby MC, Duncan GJ, McDonough P, Williams DR(2002). Optimal indication of socioeconomic status for health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2(7), pp 1151-1157.
- Dornbusch, S.,Ritter, P.,Liederman, P.,Roberts, D.,&Fraleigh, M.(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pp 1244-1257.
- Ecob R, Davey Smith G.(1999). Income and health: what is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Soc Sci Med* 48, pp 693-705.

- Furstenberg, F.F., Hughes, M. E.(1995). Social Capital and successful development among at-risk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pp 580-592.
- Galloway,J.C., Thelen, E.(2004). Feet first.Object exploration in young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7, pp 107-112.
- Galobardes B, Shaw M, Lawlor DA, Lynch JW, Davey Smith G.(2006). Indicators of socioeconomic position (part 1).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60(1), pp 7-12.
- Giagazoglou, P., Tsimaras, V., Fotiadou, E., Evaggelinou, C., Tsikoulas, J., & Angelopoulou, N.(2005). Standardization of the motor scales of the Griffiths Test II on children aged 3 to 6 years in Greece.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1(3), pp 321-330.
- Goldsmith, H.H., Buss, K.A., & Lemery. K.S.(1997). Toddler and childhood temperament: Expanded content, stronger genetic evidence, new evidence for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Dev Psychol* 33(6), pp 891-905.
- Gravelle H, Sutton M.(2003). Income related inequalities in self assessed health in Britain 1979-1995.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57(2), pp 125-129.
- Hauser RM.(1994). Measuring socioeconomic status in studies of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 pp 1541–1545.
- Hart, B., & Risley, T. R.(1992). American parenting of language-learning children: Persisting differences in family-child interactions observed in natural home environ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6), pp 1096-1105.
- Hart, B., Risley, T. R. Baltimore, MD(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everyday experience of young American children.*: Paul Brookes Publishing Co.
- Hoffman LW(2003). Methodological issues in studies of SES, parenting,

- and child development. In Bornstein, M. H., & Bradley, R. H. (Eds.),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pp125~146. Mahwah, NJ: Lawrence Erlbaum.
- Hoffman, M.L., Saltzstein, H.D.(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pp 45-57.
- <http://www.unicef.org/crc/>
- Irwin IG, Siddiqi A, Hertzman C(2007). Early Child Development: A Powerful Equalizer. Final Report fo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Commiss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WHO.
- James J. Heckman(2008). "Schools, Skills, And Synapses," Economic Inquiry, Western Economic Association International 46(3), pp 289-324.
- Jones, C.,Clark, L., Grusec, J., Hart, R., Plickert G., and Tepperman, L. (2002). Poverty, social capital, parenting and child outcomes in Canada, Ottawa: Applied Research Branch, Strategic Polic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Jongoh Kim a, Mia Son b, Ichiro Kawachi c, Juhwan Oh.(2009). The extent and distribution of inequalities in childhood mortality by cause of death according to parental socioeconomic positions: A birth cohort study in South Korea. Social Science & Medicine 69, pp 1116–1126.
- Khang YH.(2006).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socio-economic position and mortality risk in adult males of the Korea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Public Health 120(8), pp 724-731.
- Kim J, Son M, Kawachi I, Oh J.(2009). The extent and distribution of inequalities in childhood mortality by cause of death according

- to parental socioeconomic positions: A birth cohort study in South Korea. *Social Science & Medicine* 69(7), pp 1116–1126.
- Kim MH, Subramanian SV, Kawachi I, Kim CY.(2007).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fatal injuries and socioeconomic position at individual and area levels: a multilevel study. *Journal of epidemiology community health* 61, pp 135-140.
- Klebanov, P. K., Brooks-Gunn, J., McCarton, C., McCormick, M. (1998). The contribution of neighborhood and family income to developmental test scores over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69(5), 1420–1436.
- Kohn, Melvin L.(1963). Social Clas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 Interpret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8, pp 471-80.
- Kohn, Melvin L., and Carmi Schooler.(1973). Occupational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n Assessment of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pp 97-118.
- Kohn ML, Schooler C.(1982). Job conditions and personality: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their reciprocal effects. *Am. J. Soc.* 87, pp 1257–1283.
- Krevans, J., & Gibbs, J. C.(1996). Parents' use of inductive discipline: Relations to Children's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pp 3263-3277.
- Krieger N, Williams DR, Moss NE.(1997). Measuring social class in US public health research: concepts, methodologies, and guideline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18, pp 341-378.
- Lasko, M.L., Poikkeus, A.M., Eklund, K., & Lyytinen, P.(1999). Social interactional behaviors and symbolic play competence as predictors of language development and their associations with maternal attention-directing strategi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2, 541-556.
- Lejarraga H, Pascucci MC, Krupitzky S, Kelmansky D, Bianco A,

- Martínez E, Tibaldi F, Cameron N.(2002). Psychomotor development in Argentinean children aged 0-5 years. *Paediatric and Perinatal Epidemiology* 16(1), pp 47-60.
- Liberatos P, Link BG, Kelsey JL.(1988). The measurement of social class in epidemiology. *Epidemiol Rev* 10(1), pp 87-121.
- Lynch JW, Kaplan GA.(2000) Socioeconomic position. In: Berkman LF, Kawachi I, editors. *Social Epidem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3-35.
- Mackenbach JP, Kunst AE, Cavelaars AE, Groenhouf F, Geurts JJ. (1997).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morbidity and mortality in western Europe. The EU Working Group on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Lancet* 349(9066), pp 1655-1659.
- MacPhee. D.(1984). The pediatrician as a source of information about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9(1), pp 87-100.
- McLoyd, V.(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2), pp 311-346.
- Morrow, V.(2000). Dirth Look and trampy places in young people's accounts of community and neighbourhood: Implication for health inequalities. *Critical Public Health* 10(2), pp 141-152.
- Nancy Darling and Laurence Steinberg.(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pp 487-496.
- Robert M. Kliegman, Bonita M.D. Stanton, Joseph St. Geme, Nina Schor, Richard E. Behrman(2011).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19th Edition, pp 22-27.
- Ostrove JM, Feldman P, Adler NE.(1999). Relations among socioeconomic indicators and health for African-Americans

- and whites. *J. Health Psychol* 4, pp 451–463.
- Parcel, Toby L., Elizabeth G. Menaghan.(1990). Maternal Working Conditions and Children's Verbal Facility: Studying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from Mothers to Young Childre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4, pp 132-147.
- Poresky, R., Henderson, M.(1982). Infants' mental and motor development: Effects of home environment, maternal attitudes, marital adjustment, and socioeconomic statu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4(3), pp 695-702.
- Reed, E. S., & Bril, B.(1996). The primacy of action in development. In M.L.Latash & M. T. Turvey(Eds.), *Dexterity and its development*, pp 431-45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obert H. Bradley and Robert F. Corwyn.(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pp 371-399.
- Roberts, J., Burchinal, M., Durham, M.(1999). Parents' report of vocabulary and grammatical development in African American preschoolers: Child and environmental associations. *Child Development* 70(1), pp 92–106.
- Seo So-Jung(2006). A study of infant developmental outcome with a sample of Korean working mothers of infants in poverty: Implications for early intervention program.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3(4), pp 253-260.
- Shaw M.(2004). Housing and public health.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25, pp 397-418.
- Shim, S. K., Byon, K. H., Park, .H., Park, Y.M., & Kim. E. A.(2007). The mother's accuracy on the knowledge of infant's developmental level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2), pp 43-58.
- Steinberg, L., Dornbusch, S. M., Brown, B. B.(1992). Ethnic

- differences in adolescent achieve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7(6), 723-729.
- Stevens, J.H. Jr.(1984). Child development knowledge and parenting skill. *Family Relations* 33, pp 237-244.
- Thoman, J. R., & French, K.E.(1985). Gender differences across age in motor performanc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pp 260-282.
- Walberg, H.J., & Marjoribanks, K.(1976). Family environ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Twelve analytic model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4), pp 527-551.
- Waldfoegel, J., Han, W., Brooks-Gunn, J.(2002). The effects of early maternal employment on child development. *Demography* 39, pp 369-392.
- Whitehead(1992).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Equity and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22(3), pp 429-445.
- Williams DR, Collins C.(1995). U. S. socioeconomic and racial differentials in health: patterns and expla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1, pp 349–386.
- Williams, K., Haywood, K.I., Painter, M.(1996). Environmental versus biological influences on gender differences in the overarm throw for force: Dominant and nondominant arm throws. *Women in Sport and Physical Activity Journal* 5, pp 29-48.
- Wilson. J. W. (1991). Studying inner city social dislocation: The challenge of public agency resear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pp 1-14.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Maternal Parenting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oddler Development

We, Ho Sung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has significance as the viewpoint of human capital for improvement of future qualitative capacity as well as child basic right we must pursue through our will as right of survival and human dignity. Unlike adult, Children have dependent characteristic that get their own health choice to be restricted and that make their own health be determined by surrounding environments apart from genetic and biological factor. It is obvious that child's environments would create inequity of development. This study will research determinants that influence toddler development through three domains; socioeconomic status, maternal parenting characteristics, regional characteristics by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010 beta version.

Results revealed that household income, paternal occupation in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ing behavior in parenting

characteristics had effects on toddler's general development. In communication development, the higher equivalent income, the better developmental outcome. Toddlers whose paternal occupation is non-manual have higher scores than toddlers who have father engaging in manual occupation in communication development. The toddlers who showed more positive communication development had mothers who interacted sensitively and affectionally with them. Rural area had more positive communication development than big city but it needs further study about why two areas have difference in communication development as there is regional disparity within big city.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First, it couldn't investigate time-difference about effect of past socioeconomic status on present development because it is cross-sectional. In addition, this study can't predict that present low development will continue future's low development. K-ASQ that is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screening test. But this study as well as previous studies showed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child development to provoked health inequity and therefore this study findings imply necessity to make and implement policies compensating socioeconomic gap. Blocking or narrowing intergenerational transition is for equal developmental start in childhood period.

keywords : toddler development,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characteristics, regional characteristics, health inequity

Student Number : 2011-23856